

이별범죄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앱의 설계 및 구현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martphone App for Preventing Bust up Crime

이 상 훈, 이 재 훈, 조 억 백, 남 민 현, 이 일 상,
윤 현 진, 임 양 원, 임 한 규
안동대학교

Sanghun Lee, Jaehoon Lee, Eokbeak Cho,
Minhyeon Nam, Ilsang Lee, Hyunjin Yoon,
Yangwon Lim, Hankyu Lim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커플들이 있다. 하지만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는 법이다. 최근 많은 커플들의 이별로 인해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커플들의 이별의 원인인 사소한 오해를 방지하며, 커플만의 공간을 만들어 추억을 남기는 스마트폰 앱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이를 통해 커플들의 이별을 최소화하여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 서론

최근 들어 ‘이별범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20대 젊은 연인들 사이에 ‘이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강력범죄자 가운데 피해자와 연인 관계인 범죄자 수는 9912명에 달할 정도로 이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이다[1]. 본 논문에서는 ‘이별범죄’ 방지를 위한 앱 설계 및 개발을 위하여 관련연구, 설계 및 구현을 진행하였다.

II. 관련연구

1. 이별범죄 개념과 문제점

‘이별범죄’란 헤어짐을 이유로 발생하는, 그리고 그 연장에서 헤어진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가해지는 폭행과 협박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 이 중 상당수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별범죄의 대부분의 이별은 서로간의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 이별범죄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강력범죄라는 점만으로 주목받을 이슈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이별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별범죄를 통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방법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별범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예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 생각된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 이유를 피해자에게 찾는 경우가 있듯, 상당수의 이별범죄가 여성들이 이별을 요구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별을 요구한 여성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한다. 실제 지난 4월 강남

경찰서는 “이별범죄를 예방하려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 놓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방법이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이별범죄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무책임한 부분 역시 발견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별범죄 예방법에서도 우리는 이별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2].

표 1. 이별범죄 예방법

현신적 사랑 요구는 위험	연애과정에서 일과 친구관계를 포기한 남성은 이별통보를 받고 보상심리 때문에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집착하는 애인 조심하라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동은 위험신호로서, 이럴 땐 만남 횟수를 줄여 상대가 개인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때리는 습관은 못 고친다.	폭력을 습관적으로 행사하는 애인과는 빨리 결별하는 게 상책!
헤어질 때 잘 헤어져라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연락을 끊으면 상대의 집착과 폭력성을 키울 수 있으나, 서서히 정리해야 상실감을 줄이고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스토킹은 증거 수집을 해라	막연한 스톱킹 신고에는 개인사로 판단되어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사건으로 찍거나 녹음을 통해 물적 증거로 남겨야 초기에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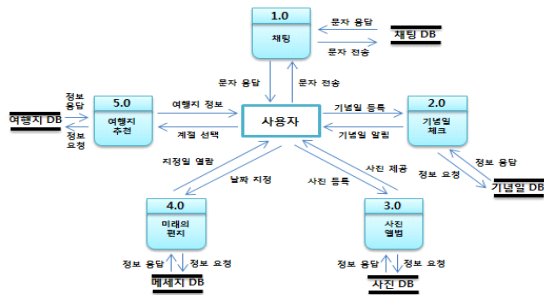
2.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별

현재 한국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시지 앱 카카오톡은 대표적인 소셜 서비스다. 이런 편리한 카카오톡은 남녀의 만남과 이별도 급격히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별범죄와 관련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터넷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운

답자의 33%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별을 경험했고, 무려 40%가 SNS를 통해 이별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SNS 등이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도구로 추가된 셈이다[3]. 본 논문에서는 이별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별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커플들이 사용하여 스케줄, 사진 및 메모의 공유 등을 통해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III. 설계

아래 그림 1은 앱의 채팅, 기념일, 사진앨범, 미래의 편지, 여행지 추천 하는 시스템 구조에 대한 자료흐름도를 나타낸다.



▶▶ 그림 2. 자료흐름도

각 프로세스별로 기능을 구체화 시킨 시스템 구조도와 각각의 프로세스들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의하였다. 사용자는 사진, 기념일, 여행지 등을 공유하며,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대가 열어볼 수 있도록 미래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IV. 구현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타입으로 여행지추천, 기념일 체크, 미래의 편지, 사진앨범 등 네 가지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아래 그림 3은 기념일정보와 미래의 편지의 화면을 나타낸다.



(a) 기념일등록 (b) 미래의편지

▶▶ 그림 3. 프로토타입 이미지

기념일 등록을 통해 커플들이 서로의 기념일을 공유할 수 있다(a). 또한, 미래의 편지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미래에 상대(또는 본인)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예약 발송을 할 수 있어, 현재의 감정을 그대로 전송하여 예약한 날짜가 되면 자동발송하여 상대(또는 본인)에게 전송이 된다(b).

V. 결론

최근 커플의 '이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관련 내용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별범죄'가 확산되지 않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문조사 및 관련 연구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별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앱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커플 앱을 많은 커플들이 사용함으로써 '이별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1]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31>
- [2] <http://blog.naver.com/spogood/90182631310>
- [3] <http://catchrod.tistory.com/719>